

“CCTV·감지기 비용이상 효과”

사찰 도난·방화 예방 시설은 무엇

사찰들이 '방화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산에서만 올들어 10여건의 크고 작은 방화 및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경찰의 방호망을 피해 하루에 네번씩이나 불을 지르기도 했다. 북한산 사찰을 찾는 불자들 사이에 '불교테러'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8월16일 경찰에 '사찰화재진압반'이 구성됐으나 8월 25일 불교텔레비전에 또다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찰화재와 도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찰화재와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CCTV 도난을 막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CCTV(감시용카메라)다. 최근들어 사찰방화 및 도난사건이 잇따라 감전 직지사

와 보은 법주사 등이 설치했으며 몇몇 사찰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 조계사, 강화 전등사, 경주 기림사 등에서는 감시용카메라를 설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는 도난뿐 아니라 방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크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서 가장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 4대(옥내2, 옥외2)의 CCTV를 설치할 경우 비용은 약 5백만원 선이다. 여기에는 모니터(흑백), VTR, 화면분할기, 전원공급기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이같은 CCTV를 제작 및 설치하는 전문업체로는 삼성방재(707-0088) 방한산업(737-1201), 미항전자(279-3949) 등이 있다.

중을 이루고 있다.

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헤드 가 개방되어 자동적으로 물을 분사시켜주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스프링클러는 습식과 건식 2종류가 있다. 습식설비는 물이 헤드까지 차있어 실내 온도가 73°C이상일 경우 분사되는 설비이며 건식설비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기가 감지해 헤드를 동작시켜 분사된다. 이 설비는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내·외 소화전 화재발생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며 동력소방펌프도 포함된다. 이는 상수도나 지하수 배관에 연결하면 된다.

물분무소화설

기타 물분무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시설(감지기류),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가 있으며 피난설비로는 인명구조설비, 유도등 등이 있다.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 연소방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다.

그러나 사찰을 전소시킬 목적으로 방화범이 다량의 유류를 사용해 불을 지를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설비는 대부분 건물의 구조나 위치에 따라 설비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설비업체와 협의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설비 및 제조전문업체는 세진방염(785-1190), 금성방재(922-9601) 등을 비롯 약 2천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각 사찰에서는 관련업체와 상담한다면 귀중한 성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김종근 기자

CCTV 24시간 침입자 '불침번'

스프링클러 화재발생 피해 최소화

소방 설비업체 전국 2천여곳

◇CCTV를 설치하면 사찰 곳곳의 생활을 한눈에 볼수있다. 사진은 조계사 모습.

감지기 실내·외 출입문이나 창문 등에 설치해 침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경보수신반에 전달,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장치다. 이같은 감지기의 종류는 적외선열감지기, 입체열감지기, 유리파손(진동)감지기 등을 비롯 약 20~30종류가 있다. 적외선 열감지기의 경우 1조(2개)에 25만원, 입체열감지기의 경우 1개당 18만원이며 이밖에 감지기는 10만원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감지기류를 제작 및 설치하는 업체로는 세운전자시스템(274-3970)이 있으며 이밖에 웬만한 전자기기를 다루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화기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소화기의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분말, 하룬, 이산화탄소를 성분으로 하는 소화기가 주



"TV가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하루종일 혼자 집에 머무는 어느 할머니의 말이다. 아침드라마, 뉴스, 씨름중계, 일일극, 동물의 세계, 주말연속극, 노래자랑 등이 할머니의 단골 프로그램이다. 이 정도면 TV는 할머니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세상소식과 교양까지 열어주는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들이 이 할머니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시청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저질 쇼를 선호하고 주부들은 속된 드라마 중독증에 걸려 가까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거리의 학생들을 보노라면 한심할 때가 있다. 허리춤 아래에 걸쳐 입은 바지는 땅을 끌고 다닌다. 일본소녀같은 차림새와 머리모양 등이 역경의 기반이다. 10대들의 그 핏선을 'TV로 찍어낸 봉어빵'이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TV화면에 비친 10대 연예인들의 듣기 민망한 노래, 보기 민망한 옷차림, 몸짓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겉불 안'이라는 말이 있다. 외모

가 그럴진대 속은 어떨 것인가. 청소년 프로그램뿐 아니다. 여성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의 심각성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불륜, 폭력, 물질만능의 허영심조장등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드라마가 1주일에 30여편씩 방영되고 있다. 이제 TV는 바보상자가 아니라 유해독소를 뿜어내고 있다.

어느 여성시청자는 인기 드라마에 빠지다 보면 일시적이지만 여자 주인공의 말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얼마나 무서운 세뇌인가. 내용이 전전하면 더없이 좋은 세뇌일 수 있다. 그러나 불건전 드라마가 더 많은 것이 문제다. 청소년이 시들고 주부와 여성이 병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TV는 바로 국민교육도량이다. 시청률도 좋고 상업성도 외면할 수 없겠지만 청소년들이 '부모말보다 텔레비전을 더 믿는다'는 현실을 바로 보자. 가을 프로그램 개편때는 'TV는 청소년 무법지대, 폭력, 외설 무방비상태'라는 비판에 눈물겨울 새물결을 변신하길 바란다.

목어

국민교육 도량

“교구본사 중심제 失보다 得 많다”

선우도량 '교구본사 역할...' 의견 다양

지방자치화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불교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중간운영체제인 교구본사중심제가 제시됐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8월27~28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제13회 수련결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수련결사에 참석한 30여명의 스님들은 다종교사회에서 국가권력으로 부터 불교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도의 힘이 결집되는 중앙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교가 역사성과 전

통성을 지켜내며 대중정서가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구본사중심제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구본사제도의 성립과 그 역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동출스님(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실장)은 “현재의 교구본사제도가 문중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폐단을 낳고 있으나 제도 자체를 바꾸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다”고 지적하며 “각 사찰마다 역할을 특성적으로 살리며 불교정신과 승가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구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광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은 현 교구본사제도의 원형이 일제에 의해 통치기구의 하

나로 만들어진 사찰령과 30분산제도라는 점에서 교구본사제도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인스님(대흥사총무)은 “사찰령이 일제에 의한 제도라는 측면만으로 용고 그릇을 따질 수는 없다”고 반론했다. 법인스님은 또 교구본사제도가 중앙과 지방의 역할 위상이 달라지는 지방화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운영도 완전한 본사중심제로 제도를 바꾸고 중앙에서는 종지 종통 및 승규에 관한 것을 통괄하는 등 중앙집권주의적 지역자율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행정중심으로 정치화 관료화되어 있는 현 교구본사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제3발제에서 사찰특화 운영을 제시한 법인스님의 주장(본지140호1면 참조)에 덧붙여 각 사찰을 총림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중중심 탈피 승가정신우선” 각 사찰 총림제 운영 의견도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교구본사제도의 원류를 초기불교의 승가공동체 조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해담스님(각화사 주지)은 “초기불교 시대에도 (界·dhatu)를 통해 지역분권을 이루며 지역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부처님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주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현재의 중

기조강연에 나선 벽파스님(범어사 금강암)은 “각 교구본사가 나름대로 대외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행의 병행이 통해 대중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중이 고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찰이 총림체제를 통해 전래의 가풍을 유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중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사=김정은 기자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흠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삼보사찰

- 불보종할 통도사
- 범보종할 해인사
- 승보종할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I, II
- 불국사·석굴암 I, II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계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강행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다유연테리 제1부 '대결경'

▲ 고려대장경 I, II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유연테리 제1부 '대결경'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유적극 형식의 본격 다유연테리

10개 1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